

##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서 지 우

- (천안)복자여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재학 중
- 2023년도 5급 공채 보호직렬 합격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3년도 5급 공채 보호직 합격자입니다. 보호직에 진입을 고민하고 있을 당시 가장 큰 두려움은 수험정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2명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는 해도 있는 보호직에 대한 정보는 정말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적는 합격수기가 보호직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위험요소를 감수하고 무모하게 보호직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명확한 지원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외활동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대학생 보호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였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입니다. 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단에서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이 일의 가치를 느끼면서 보호직에서 일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보호직과 같은 소수직렬은 특히나 굳건한 지원동기가 있으면 외롭고 힘든 수험생활을 버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직렬은 정보가 없는 불안함과 동시에 운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운이 따른다면 정말 단기합격도 가능한 곳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운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II. 시기별 공부

### 1. 진입결정(2022년)

저는 원래 검사의 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 학부에 진학하여 학점관리도 열심히 하며 로스쿨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외활동 및 여러 경험들을 통해 로스쿨과 보호직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2021년에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1년 쉬는 동안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됐고 대외활동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보호직에 진입을 결정했습니다.

### 2. 2022년 7월 ~ 2022년 12월

보호직에 진입을 결정하고 학교 고시반에 입실하였습니다. 고시반에서도 보호직 수험생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고 2차 과목은 강의도 없는 상태라서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1차는 모두가 같아서 고시반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피셋 강의를 수강하면서 과목별 스킬을 정리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2차 과목은 개별적으로 찾아서 기본 강의를 수강하면서 법학과목의 경우 쟁점정리 서브노트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강의를 안 듣는 과목(심리학)의 경우에는 독학으로 기본서를 읽으며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보호직의 경우 1차 합격 컷이 다른 직렬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2차 개념 잡기와 피셋을 7:3으로 하여 공부했습니다.

### 3. 2023년 1월 ~ 2023년 2월(1차 시험 3월 4일)

2022년 12월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피셋에 매진하였습니다. 4명 정도의 피셋스터디를 구성하여 매일 아침 8:20부터 학교 도서관에 일렬로 앉아 하루 두 과목씩 풀었습니다. 1월은 평일에 강사 모의고사를 풀었고 토요일에 메가/법률저널/프라임 모의고사가 있으면 매주 신청해서 시험장 분위기를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2월에는 매일 전과목 기출을 풀면서 취약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자료해석은 계산연습문제를 추가로 풀었고 언어논리는 신성우 강의를 들었습니다. 모의고사와 기출 복기를 통해 스킬과 오답을 정리한 노트를 만들어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고 시험 전날 그것만 훑어보고 갔습니다. 1,2월 피셋 준비기간에는 일요일 하루를 정말 단 한번도 펜을 잡지 않는 쉬는 날로 정해서 휴식을 충분히 취했습니다.

### 4. 2023년 3월 ~ 2023년 6월(2차 시험 6월 24일 ~ 29일)

3월 4일 피셋이 끝나고 일주일 쉬고, 3월 14일부터 다시 학교 고시반에 나가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출을 매일 50점씩 총 100점을 작성하면서 워밍업의 시간을 가졌고, 행시사랑에서 사회학 과외를 찾아서 과외수업을 들었습니다. 4월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번갈아가며 50

점씩 작성하고, 심리학을 추가하였습니다. 심리학은 기출을 단원별로 정리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5월에는 4월에 정리한 심리학 답안을 암기하고 형사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정책은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었고 3주차부터 기출을 단원별로 정리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6월은 그동안 정리했던 자료들을 암기하는 시간을 중점으로 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출을 반복하여 답안지 쓰는 감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요일도 쉬지 않고 매일 공부했으며 정말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날만 쉬었습니다. 스케줄러를 보니 108일간의 여정동안 비어있는 날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 Ⅲ. 과목별 공부

#### 1. 1차시험-PSAT

##### (1) 총 평-합격 점수가 낮으니까 지나치게 불안해 말기

보호직의 경우 1차 피셋 합격 컷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보니 항상 최하위 점수대에서 합격 컷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셋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컷이 낮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 피셋 난이도와 점수에 대한 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만약 내년 시험을 준비했다면 피셋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존 피셋기간에도 2차 과목을 병행하며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강사 모의고사나 전국 모의고사에서 강점과목의 경우 보통 상위 20%안에 안정적으로 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점과목

의 경우 30%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 약점과목은 50%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강점과목에서 60,70%대가 나오는 날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시험에서 합격컷보다 10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앞에서 드린 말씀은 피셋으로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을 지양하셨으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여 피셋준비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 찍기 팁: 저는 못 푼 문제들을 찍어야 할 때 가장 안 나온 선지번호로 밀어서 찍었습니다.

#### (2) 헌법

강성민 변호사님의 헌법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강의→O/X→최신판례 커리로 수강했고 학과 특성상 헌법이 익숙한 과목이기 때문에 배속으로 수강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피셋기간에는 김유향 강사모의고사를 풀면서 다른 강사의 문제 출제 경향도 경험해보고자 했습니다.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P/F이기 때문에 기본을 다지되 눈에 발라 놓는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 (3) 언어논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스쿨진학을 고려했던 터라 LEET의 언어이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문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LEET와 달리 문장이 꼬아져 있지 않아 수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언어논리에서 어려운 지문이라고 하면 문장이 꼬아져 있다기 보다 모든 문장이 정보가 되는

문장이라 정보량이 많아져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보호직의 경우 이런 한 문제 정도는 버린다고 생각해서도 합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마주했을 땐 우선 넘기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 푸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 시험운영: 저는 문제푸는 순서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적은 전반문제(1-14번&19-20번,21-32번&39-40번)→후반문제(17-18번,35-39번)→논리(15-16번,33-34번)으로 푸는 것이었습니다(문제번호는 23년 문제 기준입니다). 논리문제를 기준으로 나뉘지는 전반+1지문 2문항문제를 50분을 잡고 먼저 풀고, 후반 문제와 논리문제를 남는 40분 동안에 해결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보면 각자 어려워하는 문제의 유형이 보입니다. 그 문제들은 일단 넘기고 돌아오는 것이 시간단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왔다갔다 푸는 것이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푸는 것과 순서대로 푸는 것을 각 3번 정도 해보시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서 시험운영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대부분 피셋은 이거 하나 못풀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실전에서 특히나 문제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전국 모의고사와 같이 현장경험을 할 수 있는 시험들을 최대한 많이 응시하시고, 현장에서 시험보시면서 '이거 정도는 넘겨도 괜찮더라' 하는 느낌 잡고 또한 본인에게 맞는 시험운영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강의 추천: 논리가 어려우시다면 신성우 강사의 기초강의 중 '추론과 비판' 교재로 진행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논리와 강화약화, 추론, 논증분석에 도움을 받은 강의입니다.
- 강사 모의고사: 강사 모의고사는 조은정(22대비), 이나우(22), 신성우(23)을 풀었습니다.

#### (4)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저의 취약과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숫자에 약해서 자료해석을 가장 어려워하며 공부했습니다. 석치수 강사의 강의를 기본-기출 커리로 들었고, 계산 연습문제로 석치수 계산교재와 비타민 계산문제를 풀었습니다. 강의를 듣다보면 연산테크닉을 배우게 되는데 연산테크닉을 따로 정리하여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실수하는 부분이나 어려워하는 연산 테크닉이 있는 문제들을 모은 오답노트도 만들어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자료해석이 저에게는 오히려 암기과목 공부하는 듯이 공부했던 과목같습니다.

- 시험운영: 전반 45분 동안 1-20번 문제를 풀고, 후반 45분 동안 21-40번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반 45분이 지나면 문제를 다 못풀었어도 21번으로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 강사 모의고사: 강사 모의고사는 윤진원(23), 조훈(23), 석치수(22)를 풀었습니다. 석치수 모의고사는 정말 30점대가 나오더라도 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면서도 계속 문제를 넘기는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으니

올지마세요.

- 복기방법: 자료의 경우 복기할 때 못 풀고 넘긴 문제는 어차피 실전에서도 못 푸니까 버렸고,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틀린 문제들만 다시 보면서 푼 것들 안에서 최대한 정답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5) 상황판단

최원석 강사의 베이직-어드밴스-모의고사 커리를 들었습니다. 강사님이 알려주시는 장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듣고 후에 새로운 문제를 풀 때 배운적 없는 아이디어들이 번뜩이며 떠올랐던 경험이 있어서 상황판단에서는 최원석 강사님을 믿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유형별 스킬, 자주 실수 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문제유형, 익혀두면 좋을 법한 아이디어 등을 정리한 노트를 만들어 시험 전날까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 시험운영: 상황판단에서도 문제푸는 순서를 정해서 풀었습니다. 전반 40분은 전반문제(1-7번)→1지문 2문항(19-20번)→퀴즈 및 계산(8-18번)을 풀고, 후반 40분은 전반문제(21-27번)→1지문 2문항(39-40번)→퀴즈 및 계산(28-38번)을 푼 후, 남은 10분을 못 푼 퀴즈 문제 푸는 데 썼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반 40분이 지나면 다 못 풀었어도 21번으로 넘어가서 새롭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보면 퀴즈 및 계산 문제에서 나와 맞지 않아서 당연하게 넘길 문제들이 보입니다. 피셋은 다 맞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넘기기에

익숙해지셔야 시간 내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풀면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2차시험-논술형

### (1) 형사법 답안쓰는 연습 팁

초반에는 실전처럼 아무것도 안보고 바로 목차잡고 답안쓰기엔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쟁점정리가 어느정도 되고 답안쓰기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① 우선 문제 읽으면서 초안지에 쟁점을 찾아 목차를 적어봅니다. ② 쟁점집을 참고해 부족한 쟁점을 찾아 목차를 추가합니다. ③ 위의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본인의 답안이 강사의 답안과 어느정도 유사한지 확인하고 부족한 목차부분을 보완합니다. ④ 쟁점집을 참고하면서 10p(혹은 5p)답안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을 3개년정도 하면 답안 쓰는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쓰는 틀이 잡히고 나면 이제 쟁점내용을 암기하여 쟁점집을 보지 않고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이 때도 ① 문제를 읽으면서 쟁점을 잡습니다. ② 해당 쟁점의 내용을 쟁점집 혹은 위의 참고자료에서 찾아 암기합니다. ③ 암기를 완료한 후 2시간 정도 후에 2시간 제한시간을 두고 실전처럼 법전만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합니다. 4)암기한 내용을 다 적었는지 확인하면서 스스로 첨삭해봅니다. 이 과정은 아직 쟁점 내용이 완전히 암기되지 않았을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쟁점 내용까지 어느정도 암기가 된 시점에서는 실전처럼 법전만 가지고 문제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법학과목은 관례를 제대로 쓰는 것이 고득



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으로 정리하시고 정리하신 그대로 암기하여 답안지에도 그대로 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형법

형법강의는 신호진 저 「형법요론」을 교재로 하는 홍형철 변호사님의 강의가 깔끔하여 추천합니다. 부교재로 홍형철 변호사님이 직접 쓰신 「쟁점정리 형법」을 가지고 쟁점정리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 「쟁점정리 형법」을 베이스로 서브노트화 하였습니다. 행시기출 쟁점이 없는 경우는 이재철 저 「law man 형사법 통합 기출사례집 I, II」를 참고하여 추가했습니다. 이재철 강사님의 5급공채 형법/형사소송법 기출사례 해설 특강[2019년~2020년]이 있으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3)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도 홍형철 변호사님의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개념을 잡았습니다. 홍형철 저 「기본강의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로 반복해서 읽었고 다른 사례집을 보다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기본서로 돌아가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기본서로 개념이 잡히고 나서 김영환 저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 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과 「이창현 형사소송법」 사례집을 통해 쟁점을 보완했습니다. 서브노트는 기출에 나온 쟁점을 중심으로 기본서와 사례집을 참고하여 저만의 문장과 양으로 정제하여 한글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무리하게 양을 늘리지 마시고 본인이 시험장에서 써낼 수 있는 능력치만큼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4) 형사정책

형사정책은 7급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들을 잡았습니다. 「김지훈 정도 형사정책」을 기본서로 해당 교재만 가지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기출에서 해당 책에 없는 내용은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논문이나 대학강의 교안 등을 참고하여 보완했습니다. 책과 찾은 자료들을 암기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형사정책은 범죄원인론과 같은 이론적 부분과 보안처분, 유예제도 등 제도의 개관과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기출을 반복해서 내용을 익히시고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점수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잉크점수가 통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 (5) 심리학

심리학은 강의를 듣지 않고 교재를 읽으면서 독학했습니다. 「마이어스의 심리학」은 초반에 여유가 있을 때 두 번 정도 읽으면 쉬운 문장으로 다양한 소재를 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심리학」을 기본서로 하고 「인간행동과 심리학」「심리학의 이해」를 참고했습니다. 기본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고 그것을 암기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 시험에서 그동안 기출 답안쓰고 암기했던 것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마이어스의 심리학」에서 한 번쯤 봤던 소재들이어서 휴리스틱으로 어떻게든 써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암기가 되어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깔끔한 답안을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락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심리학에서도 잉크

점수를 노려볼만 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기출에 나온 것만 보지마시고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은 매년 불의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가 못 쓰는 거라 보시면 되니 너무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6) 사회학(선택과목)

사회학은 과외를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행시사랑에서 사회학 선생을 치시면 과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회학은 범위가 정말 방대해서 초반에 혼자 정리하려고 하면 토나올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에 큰 힘들이고 싶지 않아서 전문가가 정리해주는 액기스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과외를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또한 모든 과목 중에서 처음 답안지를 쓰려고 할 때 가장 막막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 사회학입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면서 가장 올고 싶은 과목이었지만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가다보니 막판에는 이만한 꼴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 시험에서도 선생님이 집어주신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 가장 수월하게 답안지를 쓰고 나온 과목이기도 합니다. 과제도 내주시고 자료도 많이 주시니 과외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IV. 2차 시험을 친 후

일반행정과 같이 수험생들이 많은 직렬은 시험을 치고 나서 수험생들끼리 고시반 혹은 카페글에서 시험에 대한 후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이 틀린 문제가 있다는 것

을 알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에 미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고 2차가 끝나고 이후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보호직의 경우는 후기가 오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단점으로 보자면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함으로 올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무도 모른다. 점수 나와봐야 알겠지'라는 예라모르겠다 마인드가 됐고 2차가 끝나고 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내년 시험을 위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V. 생활의 전반

##### 1. 인간관계

보호직의 수험생활은 정말 외롭습니다.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강의를 듣는 시간도 없고 모든 공부시간을 오로지 혼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셋스터디에서 만난 친구들과 또는 학교 고시반의 체육대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소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외로움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에서 친구관계에 소홀해지더라도 그렇게 공부해야 빨리 합격한다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기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막 너무 고등학교처럼 지내는 것은 피해야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 체력관리

저는 2019년도부터 홈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고시에 진입해서도 이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체력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준비 당시에는 운동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운동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유산균 말고는 영양제를 제대로 챙겨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몸이 필사적으로 영양제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비타민B를 챙겨 먹었고, 2차 준비 기간에는 오쏘몰 이문이라는 종합영양제를 몸이 죽어간다 싶을 때 한 번씩 먹었습니다. 막판 일주일정도는 오쏘몰 이문을 매일 같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잠이 올 때는 20분씩 낮잠자는 시간을 챙겼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남은 시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 3. 멘탈관리

고시준비가 원래 외로운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보호직은 거기에 배로 외로움을 겪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정보가 없으니 막막할 때,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쉽진 않겠지만 다른 보호직 수험생들도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스스로가 뒤쳐질거라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차를 막 시작하고 있는 시점인 4월에 막막함과 답답함에 굴복되어 몸도 많이 망가지고 집중력도 크게 잃었습니다. 이 또한 적응되리라 하면서 무작정 하루하루 버텼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험생활이 그렇지만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 합격수기를 읽고 계신 보호직 수험생분들은 부디 건강하게 버티시고 수험생활 마치시기 바랍니다.